

창 세 기

기록자: 모세, 기록 시기: 주전 145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2,315년(어서의 연대기), 수신자: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롬15:4; 고전10:11)

이름: 유대인들은 이 책을 ‘처음에’(In The Beginning)라고 불렀다. 영어 책명 ‘Genesis’는 창세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게네시스’에서 유래하여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정착된 이름으로 ‘기원’을 뜻한다. 따라서 창세기는 사람과 우주의 시작을 보여 주는 책이다. 주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땅을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 목적: 사람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온 인류에게 보여 주는 것(3:15, 21; 22:8; 마20:28; 요1:29; 갈4:4-5), 내용: 창세기는 창조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기원을 보여 주는 책으로 우주 만물의 창조, 사람의 창조, 가정의 형성, 죄의 기원, 사람의 타락, 희생 예물을 통해 잠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여자의 씨인 메시아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담고 있다. 또한 창세기에는 노아의 대홍수, 민족들의 발전,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 족장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기사,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진출 등도 들어 있다. 창세기는 전능하신 창조자께서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그 뒤 죄가 은밀히 들어와 세상에 파멸과 죽음을 가져온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보여 준다. 창세기는 사람의 죽음과 만물의 쇠퇴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므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창세기는 곧장 신약으로 연결되어 창세기의 말씀들은 신약 성경의 17권 책 속에서 60여 차례 인용되고 있다.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해서(1:20-28) 사망으로 끝난다(50:26). 창세기는 50장, 1,533절, 38,262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창조), 12장(아브라함을 부르심) 핵심 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1:1)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믿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한 구절은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그릇된 이론을 타파한다. 하나님께서 계시므로 무신론은 존재할 수 없고 창조자 하나님과 창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범신론도 타당하지 않으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다신론도 합당하지 않다. 또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건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유물론도 무효하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진화론도 성립되지 않는다. 핵심 단어: 처음(시작)
핵심 구: ‘처음에’(1:1), 창세기의 그리스도: 1. 여자의 씨(3:15; 마1:18-25; 갈4:4), 2. 아브라함의 씨(12:1-2; 갈3:29), 3. 우리의 화평이신 실로(49:10; 요16:33; 롬5:1), 4. 이스라엘의 돌이신 목자(49:24; 요10:11)
영적 교훈: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눅1:37; 요15:5).

제 1 장

하나님의 6일 특별 창조
(창2:4-9; 욥38:4-11)

1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2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3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4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5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6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7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8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9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11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13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니라.

14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밤에서 낮을 나누고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年)들을 나타내라.

15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광채들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체를 만드사 더 큰 광체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보다 작은 광체는 밤을 다스

리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고

17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18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19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니라.

20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21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22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23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니라.

24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 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26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27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2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

시 편

기록자: 다윗, 아삽, 모세 등, 기록 시기: 주전 1450 - 500년경, 성격: 시
수신자: 구약 시대 선민이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이름: 유대인들은 시편을 단순히 '찬양' 혹은 '찬송'으로 불렀다. Psalms는 시편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살모이'에서 유래하여 영어로 정착된 말로서 시를 뜻한다. 이 책은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가로서 '성경의 중심'으로 불렸고 그래서 루터는 이 책을 '작은 성경'이라고 불렀다. 주제: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
목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특히 율법하에서 태어나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것
내용: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 시편만큼 다양한 종교적 체험 - 흠모(欽慕), 참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기쁨, 믿음, 은혜, 사랑, 증언 등 - 을 담은 책은 없다. 이 책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이 믿음에 관한 많은 표현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시편에는 개인들의 경험이 이스라엘의 공동생활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결과 이 책에는 보편성이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역사의 단계들과 다양한 생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겪는 영적 체험들이 복합적으로 표현될 때 이런 보편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겪는 모든 체험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으로써 응답하였다. 시편 중 많은 것들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性品) 즉 그분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의, 긍휼, 진리, 전지전능하심, 불변하심 등을 노래한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고 117편은 가장 짧은 장이며 성경의 중간에 놓인 장이다. 한편 103편 1,2절은 성경의 한가운데 놓인 절로서 그 가운데 1절은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로 되어 있다. 시편은 150장, 2,461절, 42,682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19편(하나님의 말씀), 핵심 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29:2), 핵심 단어: 찬양하라(150회 이상), 핵심 문구: '주를 찬양하라'(7:17), 시편의 그리스도: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영적 교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 찬양하는 성도가 되라.

제 1 편

- 1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 획대로 견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 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 2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 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 3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 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 하리로다.
- 4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령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심판 때에 서지 못하며 죄인 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 하리니

6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 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 2 편

- 메시아의 승리와 왕국(행4:23-31)
- 1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 2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이르기를,

3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4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5 그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히 여기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6 그럼에도 내가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7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교도들을 네 상속물로 내게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네 소유물로 주리라.

9 내가 그들을 쇠막대기로 부수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내던져 산산조각 내리라, 하셨도다.

10 그러므로,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롭게 될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12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제 3 편

¶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지은 시.

1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이 많으니이다.

2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3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분이시니이다.

4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5 내가 누워 잠이 들고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이라.

6 수만의 백성이 나를 대적하려고 사망에서 나설지라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8 구원은 주께 속하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제 4 편

¶ 느기돗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에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으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2 오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영광을 바꾸어 수치가 되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려느냐? 셀라.

3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

4 경외심을 품고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히 있을지어다. 셀라.

5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6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오? 하오니, 주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의 빛을 드

말라기

기록자: 말라기, 기록 시기: 주전 430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둘째 성전을 지은 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유다 백성
이름: 말라기는 '여호와와 사자'를 뜻한다. 대언자 말라기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언한 인물로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연결해 준다.
주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메시아 약속, 목적: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위로받게 하는 것
내용: 바빌론에서 돌아온 지 100년쯤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집을 무시했고 특별히 제사장들은 위선에 빠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무관심 속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백성들은 죄와 결합함으로써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쉽게 아내를 버리는 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일을 행했다. 말라기 대언자는 이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되 위선자와 죄인에게는 심판자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보이면서 회개를 촉구했다. 또한 말라기는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한다. 말라기서는 4장, 55절, 1,781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4장(주의 날)
핵심 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같이 자라리라."(4:2), 핵심 단어: 어떤 점에서
핵심 문구: '너희가 너희 말들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말하기를'(2:17)
말라기서의 그리스도: 1. 언약의 사자(3:1), 2. 의의 해(4:2)
영적 교훈: 주의 재림이 확실하다.

제 1 장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1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2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3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들을 위해 주었느니라.

4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와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되 군대들의 주는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세울 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하며 주

께서 영원토록 격노하시는 백성이라 하리니

5 너희 눈이 그것을 볼 것이며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경계에서부터 크게 높여지시리로다, 하리라.

6 ¶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군대들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이거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거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드리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상은 업신

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8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네 총독에게 바쳐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좋게 받아 주겠느냐?

9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원하건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해 보라,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그가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10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너희 가운데 과연 누가 있느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11 내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크게 되고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며 정결한 헌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12 ¶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 함으로써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13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말하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였으며 그 일을 향해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너희가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14 그러나 속이는 자 곧 자기 양 떼에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물을 드리

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제 2 장

부패한 제사장들

1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2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심지어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 복들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3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고 똥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4 그러면 내 언약이 레위와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5 생명과 화평의 내 언약이 그와 함께하였는데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그가 두려움으로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의 죄

6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법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걸었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니 이는 그가 군대들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니라.

8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베들레헴이니이다.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이같이 기록하시기를,

6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7 그때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8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다시 말을 전해 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9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위에 멈춰 서므로

10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는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린 뒤

12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서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왕께서 이집트로 피신하심

13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피하여 내가 네게 말을 전해 줄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하매

14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15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무죄한 아이들이 학살됨

16 ¶ 그때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곳의 모든 지경 내에 있는 두 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

17 이에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이르시되,

18 라마에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해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셨느니라.

왕께서 나사렛에 정착하심(눅2:39)

19 ¶ 그러나 헤롯이 죽으매,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20 이르되, 일어나서 어린아이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21 그가 일어나서 어린아이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2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옆으로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23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에 가서 거하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제 3 장

침례자 요한

(막1:2-8; 눅3:1-20; 요1:19-28)

1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2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 이 사람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그가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5 그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주변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6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7 ¶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10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11 참으로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력하시므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12 곧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넣으시되 겹질은 켄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왕께서 침례를 받으심
(막1:9-11; 눅3:21-22; 요1:29-34)

13 ¶ 그대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르단에 있는 그에게 오셨으나

14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 오시나이까? 하매

15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그대에 그가 그분께 허락하더라.

16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17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제 4 장

왕께서 시험을 받으심
(막1:12-13; 눅4:1-13)

1 그대에 예수님께서 상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2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주리시니라.

3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으나

4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5 그대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16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리라.

17 그들의 말은 궤양처럼 파먹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을 범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뱀에서 떠날지이다. 하는 *글이 적힌* 이 봉인이 있느니라.

20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21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 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22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23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피하라. *네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24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25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26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제 3 장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

1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 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4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5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6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 들은 죄들로 놀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7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느니라.

8 한편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같이 그렇게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는데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9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10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고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 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출하셨느니라.

12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13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14 그러나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15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16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제 4 장

복음을 선포하라

1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2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3 그들이 전전한 교리를 전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 두고

4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네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6 이제 내가 현물로 드러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8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부탁과 경계의 말

9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10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겐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12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 놓은 겹옷을 가져오고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14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15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16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셔서 나를 강진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된 복음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부록

1. 킹제임스 성경과 틴데일	1
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8
3. 성경 연대기	30
4. 지도 색인	34
5. MEMO	37